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482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4월 11일 (음력 2월 26일) 수요일

‘민주당 vs 평화당’ 시장 · 군수 선거 대격돌

평화당, 인지 · 경쟁 높은 7명 선제 공천 ‘표밭갈이’

민주당, 컷오프 경선 작업 한창…“치열한 승부 될 것”

민주평화당이 선제적으로 전남지역 일부 기초단체장 공천자를 잇달아 확정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후보간 대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10일 전남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평화당은 전날 고흥군수 후보에 송귀근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강진군수 후보 곽영체 전 전남도의원, 구례군수 후보 박인환 전 전남도의회 의장 등 3명에 대해 공천을 확정했다. 앞서 박홍률 목포시장 후보, 명현관 해남군수 후보, 임호경 화순군수 후보, 이윤행 함평군수 후보를 확정, 후보가 7명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평화당이 기초단체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박병종 군수의 3선으로 무주공산이 된 고흥군수 선거는 양당간 혈투를 예고하고 있다. 평화당이 송귀근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을 고흥군수 후보로 확정한 가운데 민주당은 공천작업이 한창이다.

민주당은 송형곤 전 전남도의원, 김학영 전 고흥경찰서장, 공영민 전 제주특별자치도 기획관리실장, 장세선 고흥군의회 의원이 공천장을 거머쥐기 위해 표밭을 갈고 있다.

평화당 곽영체 전 전남도의원도 자신과 상대할 강진군수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될 것인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 후보로는 강진원 현 군수와 이승옥 전 여수부시장, 장경록 전 강진읍장 등이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평화당 구례군수 후보로는 전남도의회 의장으로 출중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박인환 전 전남도의원이 공천장을 들고 표밭을 누비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왕해전 구례발전포럼 대표와 김순호 전 구례군수 비서실장, 최성현 전 구례부군수, 이창호 전 전남도의원이 공천 경쟁을 하고 있다. 구례군수 선거도 현직이 3선 제한으로 무주공산이다.

현직 프리미엄이 없어 전남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으로 꼽히는 해남군수 선거에는 평화당 명현관 전 전남도의회 의장이 일찌감치 공천장을 받았다.

민주당 해남군수에는 이길운 전 해남군의회 의장, 김석원 전 전남도의원, 윤재갑 전 해군 군수사령관, 김왕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부이사관이 뛰고 있다.

목포시장 선거 역시 평화당 소속 박홍률 현 시장과 민주당 후보간의 물러설 수 없는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재선을 노리고 수성에 나선 박 시장에 맞서 민주당 후보군으로 조요한 목포시의원과 최기동 전 목포시의장, 김종식 전 광주시경제부시장, 김한창 공공정책연구원장이 경쟁하고 있다.

화순군수 선거는 평화당 후보로 임호경 전 군수로 확정되면서 전·현직 군수 간 리턴매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재선을 노리는 민주당 구충곤 현 군수가 민주당 공천을 받으면 임 전 군수간 4년만에 리턴매치가 성사되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이형권 화순농협조합장과 구충곤 현 군수가 공천 티켓 경쟁을 하고 있다.

3선에 도전하는 안병호 현 군수가 ‘미투’ 의혹이 불거져 불출마하면서 무주공산이 된 함평군수 선거도 함평군의회 의장을 지낸 이윤행씨가 평화당 공천자로 확정되면서 민주당 상대가 누가 될 것인가가 관심이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김천희 샛별유치원 원장, 윤한수 전 나비골농협조합장, 김성호 전 전남도의원, 김성모 전 함평군번영회장, 박태옥 전 전남도의원 등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전남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 이외에 전남지사 후보를 내기 어려운 야당의 상황에서 기초단체장 선거가 여야간 치열한 승부가 될 것이다”면서 “평화당은 일찌감치 후보를 확정해 적극적인 표밭갈이에 나선다는 전략이다”고 말했다.

뉴시스

풍차와 튤립 ‘2018년 제11회 신안튤립축제’ 개막을 하루 앞둔 10일 신안군 임자도 튤립공원이 만개한 튤립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고 있다.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들 징역 10~15년 확정

신안군의 한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학부모들에게 대법원이 각각 징역 10~15년의 형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15년, 이모(36)씨에게 징역 12년, 박모(5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5월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학부모로서 범행을 공모하고 피해자 주거에 침입한 뒤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김씨에게 징역 18년, 이씨에게 징역 13년, 박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간음행위에 대해 공모 및 합동관계를 인정했지만, 간음미수행위는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단독범행으로 봤다.

2심은 1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0년과 8년, 7년으로 감형했다.

반면 대법원은 1·2심과 달리 준강간미수 범행도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유죄 취지로 판단,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씨와 박씨가 당시 관사 앞에서 서로를 보지 못했다는 진술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고 일련의 상황은 이들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지 않으면 설명하기 어렵다”며 “김씨가 박씨로부터 이씨의 범행을 저지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관사에 가게 됐다는 진술도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취지와 같이 준강간미수의 공모를 인정, 김씨에게 징역 15년, 이씨에게 징역 12년,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Photo 漫評

뚝심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7일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집단휴진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날은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다.
국민 여론을 감안해 정상회담 뒤 집단휴진을 추진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의협은 예정대로 이날 휴진을 강행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와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은 지난 8일 회의를 갖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 저지 투쟁 일정을 확정했다.
우선 오는 27일은 집단휴진과 전국 시군구의사회 및 대학병원특별분회 비상총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다음달도 13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월 집회 일정 등 세부사항은 최대집 회장 당선인과 16개 시도의사회장 모임에서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신봉우 · 자료사진=뉴시스

추미애

홍준표

문재인